

시론



오수열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동북아학회 이사장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치게 된다. 공자님 당년에도 세상이 무척 힘들었던가보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자공(子貢)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님께서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사력을 튼튼하게 하면 백성들이 믿을 것이다”(足食足兵民信之矣)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나온다. 요즘말로 풀이하면 “경제가 잘 돌아가고, 안보가 튼튼하면 국민들이 정부를 믿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정부를 믿는다’는 것으로 경제적·안보적 어려움이 아예 없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그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선거를 둘러싸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두 차례 모두 공산주의국가에서나 등장할 법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 출현하였고 위성정당 두 곳에 모두 50여여원의 국가보조금이 지급되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두 위성정당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2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곧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다시 통합함으로써 50여 여원의 국민세금만 먹고 튀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와 정치인들을 믿을 수 있겠는가.

21대 국회 종료로 앞두고 이미 여야간 극한적 정치투쟁이 시작되었고,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이러한 대립과 투쟁은 더욱 노골화될 전망이다.

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 ‘재상병특검법’, ‘김여사특검법’ 등을 밀어 부칠 태세이다. 대통령을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 전가의 보검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양날의 칼’이 되어버린 느낌이 없지 않다.

이쯤에서 우리는 김영삼과 김대중 전직 두 대통령에게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들 역시 가족문제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고,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에서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직접 국민 앞에서 ‘사과성명’을 발표하였고 당사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

다시 『논어』로 돌아간다. 자공이 공자님께 물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식량, 군사력, 믿음 셋 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공자님께서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셨다. “군사력을 버려야지!” “나머지 둘 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요?” “식량을 버려야지!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역시 공자님다운 대답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자님의 가르침이 맹자(孟子)에게 이르러 백성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民難勝不可勝)는 민본사상(民本思想)으로 발전한 것이다.

물결 2천500년전에도 이랬겠는가 어찌 21세기에 권력이 국민을 이기려 하며, 정치인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일까...

4·10총선도 끝났고 얼마 있지 않으면 22대 국회가 개원할 것이다. ‘총선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대통령과 여당이 21대 국회보다 더 기울어진 국회 권력구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사실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지닌 4·10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다만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더욱 강성인 ‘조국혁신당’이 제3당의 입지를 굳힌 상황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들의 삶이 참으로 어렵다고 한다. 실제 총장로를 걷다 보면 ‘임대문의’라는 표지가 붙은 가게들이 늘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지속속속 줄어든다고 한다. 경제적 어려움의 책임이 반드시 정치인에게만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책무는 정치인의 몫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세상이 어려워지니 다시 논어(論語)를 펴

기고



서장원
광주지방기상청장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광주·전남에도 올린다

기 위해 지난해부터 신설된 제도로, 통신 3사(KT, SK텔레콤, LGU+)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해당 서비스를 광주·전남에서 시범운영하게 된 이유는 지난 10년간(2013~2022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 수준의 매우 강한 호우 발생 일수를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 지역이 4.1일(지난해 7일)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폭우가 내린 지난해 6월, 함평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 발생 상황은 사고 발생 약 1시간 전에 해당 지역에서 내린 비가 이 문자를 발송해야 할 수준이었다.

이 사건 이후 현재 광주지방기상청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수리시설감시원을 대상으로 기상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전남에는 1천500여명의 수리시설감시원이 있는데, 지난 3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지사별로 계약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광주지방기상청은 감시원의 교육 일정에 맞춰 기상청에서 만든 날씨 앱 등을 소개하고, 기상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 및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를 홍보하고 있다.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는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여타 재난 문자와 달리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 돼 재난 문자가 발송된다.

따라서 정확히 위험 상황이 발생한 해당 지역의 국민에게만 경고한다는 점이 기존과 차별화됐다.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을 때 경고 문자의 소리 크기는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하

고,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유도함으로써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하므로 40dB의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

소음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확인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노출되는 수준의 데시벨인데,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20~30dB 정도는 소리의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집중호우의 절반가량이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발생하는데,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는 것은 현재 비로 인한 위험 상황을 알리는 것이니 잠에서 깨어나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한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유럽·아시아·북미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온, 폭우 등 기존 상식을 벗어나는 여러 극단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광주·전남 역시 지난해 4월까지의 가뭄이 지속되다가 5월 이후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 서 경험하지 못했던 기후변화를 겪고 있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이러한 극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상청의 강력한 방패로, 지역민들이 자연재난에서 신속히 대피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호우 긴급재난문자 확인 시 안전을 위해 방재 관계기관과 지역민들은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시행해 주길 바라며,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도 광주지방기상청의 사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하늘과 바다를 감시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

지난해 광주시의 여름철 장마 기간 누적 강수량은 1천102.5mm로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전남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

많은 양의 비로 인해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기상청은 올해부터 대국민 재난 문자(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직접 운영한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시범운영됐던 이 서비스가 올해는 전남권과 경북권까지 확대되면서 지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 예정으로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mm이면 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됐을 때 기상청에서 직접 발송한다.

또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간 확보를 위해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도 발송된다.

호우 긴급재난문자서비스는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하늘을 감시하는 기상청이 강한 호우 발생 지역에 즉시 재난 문자를 보냄으로써 현장에서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유도하

독자투고



우리나라에서 극소수의 부유층이나 특정 연예인의 범죄로 널리 인식됐던 마약 관련 범죄는 이제 일반 성인을 넘어 청소년들 사이에 침투했다는 내용을 접해봤을 것이다.

우리나라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4배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청소년에게 더욱 위험한 마약이 급증하는 원인은 대개 고도로 발달한 정보화시대에 SNS를 통한 정보 습득 그리고 호기심에 의한 점, 부모보단 또래집단에 의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전이된다.

청소년 마약,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때

미성숙한 시기인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해 우리 어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마약하지마, 마약은 하면 안 된다.”와 같은 형식적인 교육을 하는 것 보단 마약은 무엇이며, 마약을 하게 되면 겪게 되는 부작용 등 위험성을 구체적,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마약범죄에 노출된 아이들을 지원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전문 상담사를 통한 적극적인 치료 및 교육제도를 마련하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단순한 호기심과 일탈의 유혹에서 시작되는 청소년 마약 범죄는 이미 청소년들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중독의 길로 접어드는 중일 수 있다.

무릇 청소년 마약범죄는 청소년 개인의 잘못보단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자라난 범죄와 같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 속에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교회·장흥경찰서 경비반보교)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전남 국립의대 공모 5인 회동도 불투명하다는데

국립의대 유치와 관련해 전남도가 순천대와 순천시, 목포대와 목포시를 포함해 5인 회동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순천 지역사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과거 용역 결과 공개, 공모 기준 합의 및 도민 동의 등 3가지 조건을 받아들이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특정 대학과 지역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고 손사래 쳤다. 전남도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모 방식을 채택했다며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여전한 평행선으로 만난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앞서 이례적인 공모 발송을 통해 전남도는 ‘공적인 업무’라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지는 의미라며 김영록 지사가 의견을 경청하고,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지만 내심 압박하는 모양새다. 지난 4월 중순 김 지사가 박홍률 목포시장과 송하철 목포대 총장, 노관규 순천시장과 이병운 순천대 총장을 따로 만났었다. 이번에는 이해당사자가 처음으로 함께 하는 것인데 머구름이 드리웠다. 전남도는 2026학년도 200명 배정을 정부에 건의

했으며, 용역을 거쳐 10월까지 추천 대학을 보고 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김 지사의 건의를 수용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개혁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공식화함으로써 의과대학 신설은 탄력이 붙었다. 5인 회동의 성사 여부,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그러나 순천 지역사회는 김 지사의 잇따른 대응적 결단 촉구에도 반발, 독자 추진 의사까지 밝히고 있다. 도지사는 법적 공모 권한이 없다는 등의 이유여시다.

전남 의대 설립 방식이 통합에서 단일 의대 선점으로 전환한 이후 동·서부 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정부는 충분한 여론과 절차를 강조한다. 한 목소리를 낸다면 속도전 양상이 될 것인 반면, 그렇지 않다면 좌초 가능성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남도는 윤 대통령 임기 내 매듭짓고자 한다. 김 지사가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람사르 등록 가시화 평두메습지 정부 지원 희소식

무등산국립공원 내 평두메습지는 북구 화암동 530 등 14필지 2만2천600㎡ 규모의 목논습지다. 오래 내버려 두어 거칠어진 논 형태와 살과 담비,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578종과 식물 208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경관 생태학적 가치와 생물다양성이 높다. 하지만 주변의 농업 활동과 폭우 등으로 일부 훼손되면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광주시가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하는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 현장 점검 등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임성준 환경부 차관도 최근 현지를 둘러보고 적극 지원을 약속, 속도가 붙었다. 지난해 4월 광주시는 북구, 무등산국립공원공단과 협약, 실태조사 등을 거쳐 환경부에 람사르 지정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올해 2월 람사르 협약 사무국에 신청한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사무국은 1971년 이란에서 채택된 람사르협약에 따라 국제적 보전이 요구되는 지역을 인증하고 있으며 최소한 3개월에서 최대 1년이 소요된다.

람사르로 공인되면 광주는 장륙국가습지와

함께 명실공히 친환경경쟁도시와 환경보전도시로서 위상을 한층 드높일 것이다. 장륙습지는 영산강과 생태적 연결통로가 형성되고 원형이 잘 구축된 도심 내 하천습지로, 생물다양성까지 풍부해 환경부도 인정했다. 특히,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한가운데 위치한 최초의 습지로 시민 누구나 쉽게 산책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과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적 차원으로 도 발전 가치가 있는 보기도문 명품자산으로 꼽힌다.

무등산 평두메습지는 람사르 등록의 당위성을 충분히 갖는다. 선정 기준인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생물주기 중 중요 단계에서 식물·동물 종을 보유한 경우 또는 약조건에서 피난처를 제공한 경우를 충족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우수한 생태관광자원으로 도약하는 것은 물론 국제생태도시의 명성을 제고하게 된다. 환경부도 실태를 확인하고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빠른 시일 내 지정될 것이라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습지는 건강한 생명의 모태다. 시민들의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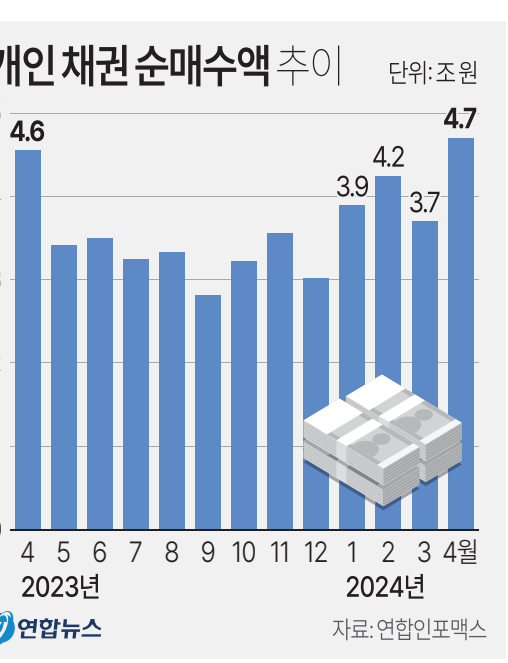
그래픽 뉴스

채권개미, 또 역대 최대 순매수...한달간 4.7조 뭉치듯

지난달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 규모가 4조7천억원에 기록하며 월별 순매수 기준 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7일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개인의 채권 순매수액은 4조7천33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존 개인 월별 최대 순매수는 지난해 4월 기록한 4조5천527억원으로, 꼭 1년 만에 순매수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개인 투자자의 월 단위 채권 순매수 규모가 4조원에 이른 건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올해 들어 개인의 채권 매수세는 작년보다 강한 편이다. 지난 1~4월 개인의 채권 순매수액은 16조5천426억원으로 작년 동기(13조9천437억원) 대비 18.6% 증가했다.

월별 순매수 추이를 보면 1월은 3조8천908억원, 2월 4조2천464억원, 3월 3조7천199억원 등으로 1~3월에는 4조원 안팎을 오가다가 지난달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개인의 채권 순매수 규모는 은행(2조4천902억원)과 자산운용(2조3천405억원)을 제외하고 연기금·공채회(7조778억원), 외국인(6조4천972억원), 보험(4조9천569억원)과 견줄 정도다. 증·상·하·금(4조3천73억원)과 기타법인(4조1천987억원)은 개인이 뛰어넘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16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10(日)·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